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몽골

Mongolia

2024년 4월 9일 | 조사역(G3) 박지혜

- 국가개황
- 경제동향
- 경제구조 및 정책
- 정치·사회 안정
- 국제신인도
- 종합의견



일반개황

면적 1,564천 km ² 	인구 351만 명 (2023 ^e) 	정치체제 이원집정부제 	대외정책 친서방 실리외교 
GDP 187.8억 달러 (2023 ^e) 	1인당GDP 5,348달러 (2023 ^e) 	통화단위 Tugrik 	환율(\$기준) 3,465.74 (2023 ^e) 

- 몽골은 아시아 북방에 위치한 내륙국으로 국토 면적은 한반도의 7배이나 인구는 351만 명에 불과하여 세계에서 인구밀도가 가장 낮은 국가임. 국토의 대부분이 해발 약 1,500m의 고원지대이며, 남북으로 중국, 러시아와 국경을 접하고 있음.
- 구리, 석탄, 형석 등 80여 종의 광물자원을 보유한 세계적인 자원부국으로, 광업 부문은 GDP의 20% 이상 및 총수출액의 80% 이상을 차지하여 국가경제를 이끌고 있음. 다만, 3C(China, Copper, Coal) 및 외국인직접투자(FDI) 의존도가 높아 대외적 요인에 의한 경기 변동성이 높음.
- 중국, 러시아에 치중된 정치·경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본, 인도, 프랑스와 교역하는 등 외교·경제 다각화를 노력 중임.
- 관광업 활성화를 위한 'GoMongolia' 슬로건 채택, 인도 소프트웨어를 활용한 최초의 정유공장 건설, 완료 시 세계 우라늄 생산의 4%를 차지할 것으로 기대되는 우라늄 광산 프로젝트 추진 등 다양한 성장 가능성이 존재함.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1990. 3. 26 수교 (북한과는 1948. 10. 15 수교)
- 주요협정** 투자증진·보호협정('91), 무역협정('91), 경제·과학·기술협정('91), 문화협정('91), 항공업무협정('91), 외교관·관용사증면제협정('91), 이중과세회피·탈세방지협약('93), 세관협정('93), 대외경제협력기금차관협정('96), 에너지·광물자원협정('99), 범죄인인도조약('00), 형사사법공조조약('00), 관광협정('04), 사회보장협정('07), 수형자이송조약('08), 민사·상사사법공조조약('10), 사증발급간소화협정('12),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23), 기후변화협정('23)

교역규모

(단위 : 천달러)

구분	2021	2022	2023	주요품목
수출	384,715	426,344	476,439	자동차, 기호식품, 비누치약및화장품
수입	24,949	38,240	62,790	기타금속광물, 의류, 금은및백금

해외직접투자현황(2023년 말 누계, 총투자 기준) 735건, 607,722천 달러

국내경제

(단위: %)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제성장률	5.6	-4.6	1.6	5.0	5.5
소비자물가상승률	7.3	3.7	7.4	15.2	12.3
재정수지/GDP	1.0	-9.2	-3.0	0.7	-0.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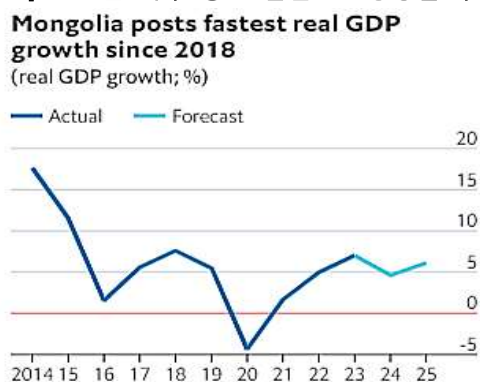
자료: IMF, EIU

광물 수출 및 민간소비 증가, 관광업 활성화로 2022~23년 연속 5%대 경제성장 추정

- 몽골 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으로 인한 전 세계적 경기침체와 무역 감소, 특히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2020년 -4.6%의 역성장을 기록함. 이후 중국 경제의 리오프닝, 오유 톨고이 광산 채굴 개시 등에 힘입어 2022년 5.0%의 플러스 성장을 회복하였으며, 2023년에는 수출 성장세 지속과 임금 인상 및 민간소비 증가에 힘입어 5.5%의 성장을 달성한 것으로 추정됨.
- 몽골 통계청의 2023년 GDP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GDP에서 광업의 비중은 5.2%p 증가한 반면 농업과 서비스업 비중은 각각 2.8%p, 0.9%p 감소해 몽골 경제의 광업 의존도가 증가함. 산업별 GDP 성장 기여도는 전년 대비 광업이 2.58%p, 운송업이 1.77%p 각각 증가한 것으로 분석되며, 2024년 국제철도협력기구(OSJD)에서 합의된 몽골의 국제 화물량은 전년 대비 150만 톤 증가한 2,169만 톤임.
- 2023년 관광업은 광업을 제외하고 10억 달러 이상의 수입을 발생시킨 유일한 산업으로, 2023년 입국 관광객 수는 2022년 대비 2.1배 증가한 59만 4,103명임. 몽골 방문의 해(2023~25년) 선포, 무비자 입국 대상국 확대(34개국 → 61개국), 2024년 2분기 발효 예정인 미국과의 항공자유화 협정 등에 힘입어 관광업 활성화가 몽골 경제의 플러스 성장을 견인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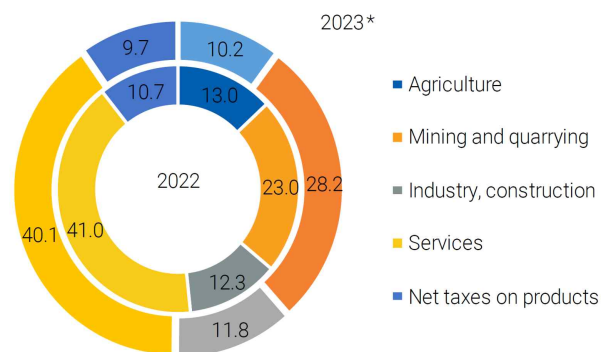
* 관광객 : 183일 내 범위에서 취업 이외의 목적으로 통상적인 환경이 아닌 장소를 여행 또는 체류하는 사람

[그림 1] 2018년 이후 몽골 실질GDP성장률 추이(%)



자료: EIU

[그림 2] 2023년 몽골 GDP 구성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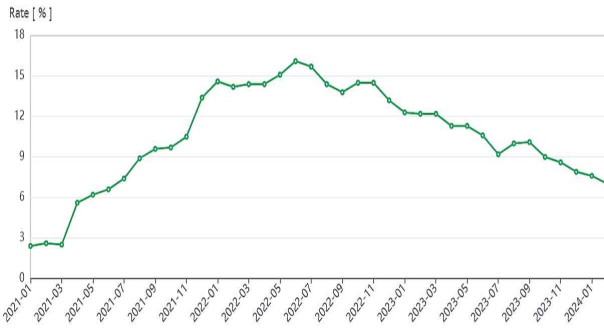
자료: 몽골 통계청

국내경제

인플레이션 압력은 2024년에도 완화되겠으나 중앙은행의 인플레이션 목표 범위를 상회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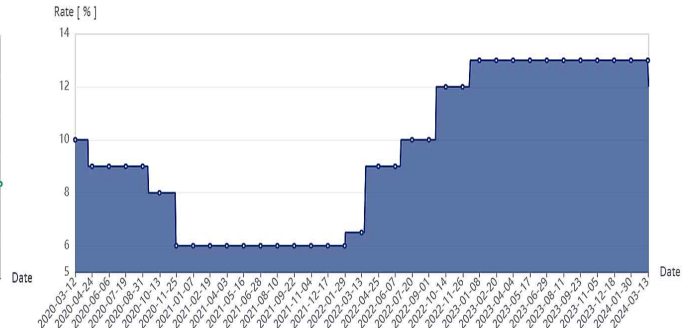
-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전년(15.2%)보다 2.9%p 낮아진 12.3%로 추정되며, 2024년에도 식품가격 안정 등으로 인해 낮아질 것이나 중앙은행의 소비자물가상승률 목표범위(4~8%)를 상회할 전망이다.
- 주요 무역거점인 Zamiin-Uud 내륙항(중국과의 국경에 위치)이 중국의 제로코로나 정책으로 폐쇄되어 중국으로부터의 상품수입이 감소하자 소비자물가상승률은 2021년 초 2% 수준에서 동년 말 11%로 급등하고(연평균 7.4%), 생활 소비재 부족 등으로 2022년 6월(16.9%)까지 상승 후 하락세로 접어들어. 2023년 6월 추가경정예산 통과 후 9월(10.1%)에 다소 반등하여, 2023년 소비자물가상승률은 12.3%로 추정됨(IMF).
- 식료품 가격을 중심으로 하는 최근의 상품가격 안정화는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며, EIU는 이를 반영해 2024년 몽골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를 10%에서 7.8%로 수정함. 다만 2024년의 확대 예산, 석유가격 급등, 몽골 내 임금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으로 작용함.
- 2020년 몽골 중앙은행은 경기 활성화의 일환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으며(11% → 6%), 2022년에는 인플레이션 억제 목표로 기준금리를 인상해(6.5% → 13%)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높은 정책금리를 유지했음. 2024년 3월 15일 몽골 중앙은행은 중기적 자금조달 여건 완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1%p 낮춘 12.0%로 결정함.

[그림 3] 몽골 소비자물가상승률 추이(%)



자료: 몽골 중앙은행

[그림 4] 몽골 정책금리 변화 추이(%)



* 2020년 초 정책금리: 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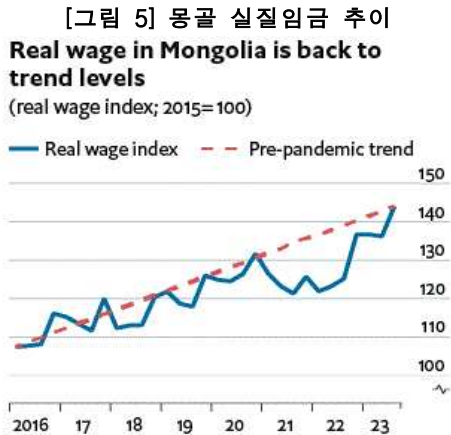
2024년 재정수지는 확대 예산 편성으로 인해 GDP 대비 -2% 이상 적자 전망

- 2020~21년 재정수지 적자의 원인인 코로나19 관련 지원정책의 축소로 2022년 재정수지는 GDP 대비 0.7%의 흑자를 기록하였으나, 2023년에는 인프라 투자 프로그램 위한 자본재 지출 증가(2022년 대비 24.5%), 추가경정예산에 따른 공공분야 임금·연금 인상으로 등의 요인으로 재정수지가 다시 GDP 대비 -0.7%의 적자로 전환됨.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정부 수입은 약 24조 3,100억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31.3% 증가했으며, 광업 부문의 로열티 및 부가가치세 수취는 재정수입의 중요 원천임. 2024년 확대 예산 편성은 GDP 대비 3% 이상의 재정수지 적자를 유발할 전망이며, 중국 경기 침체, 공공 부문 임금 인상, 연금 혜택 증가, 값비싼 자본재 수입은 재정수지에 부담으로 작용함. 한편, 몽골 정부는 2024년 경제지표를 경제성장률 7%, 소비자물가상승률 8.5%, GDP 대비 -2%의 재정수지 적자로 전망하여 지나치게 낙관적이라는 비판이 존재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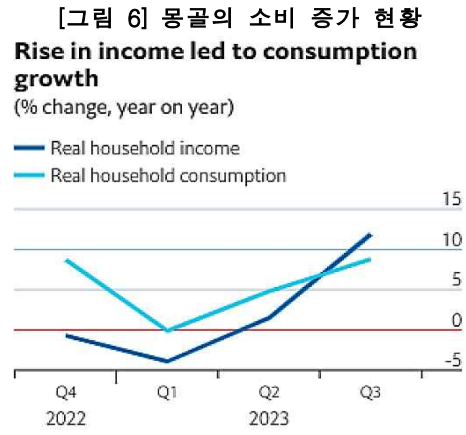
국내경제

소득수준 향상 및 외국인투자 활성화로 경제성장 기대

- 2024년 몽골의 월 최저임금은 전년 대비 20% 상승한 66만 투그릭이며, 2023년 6월 통과된 공공 부문 급여 인상(3~40%) 추가경정예산, 2024년 예산에 반영된 급여·연금 상승 등으로 소득수준 개선이 이루어짐. 몽골의 실질임금은 팬데믹 이전의 추세 수준을 회복했으며, 민간소비 증가는 수출 성장세 감소의 영향을 일부 상쇄할 것으로 전망됨.
- 공공 부문 근로자는 몽골 고용인구의 약 25%를 차지하여, 공공 부문 임금 인상은 가계소득 증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침. 2023년 3분기 가계소비는 전년 대비 8.8% 증가했으며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재정수입은 전년 대비 31.3%, 소득세 징수액은 전년 대비 51.6% 증가함. 2024년에도 소득세를 통한 추가적 세입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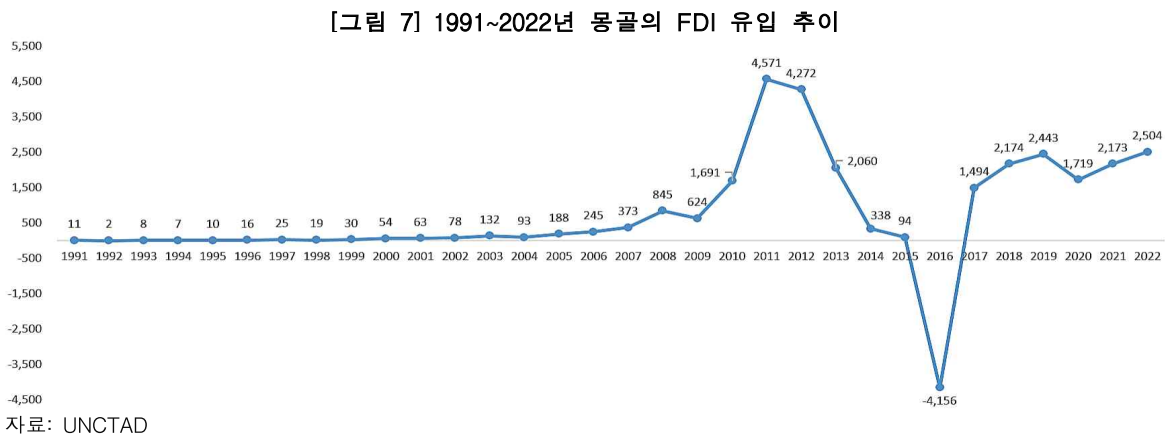


출처: 몽골 통계청, EIU



출처: 몽골 통계청, EIU

- UNCTAD에 따르면 몽골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코로나19 팬데믹 영향으로 일시적 감소를 보였으나 곧바로 반등하여 2023년 25억 달러를 기록함. 몽골 통계청은 2010~23년까지의 FDI 총 누적 금액(305억 8,700만 달러) 중 광업 부문 비중을 70.5%로 분석하며, 비광업 분야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몽골 정부가 제출한 투자법 개정안이 2023년 보류되었으나 재논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됨.
- 투자법 개정안은 ①외국인 투자기업의 최소 투자요건(10만 달러) 삭제, ②투자자 분쟁 해결을 위한 협의체 설치, ③외국인 투자자에 대한 복수비자 발급 등의 내용을 포함함.



자료: UNCTAD

대외거래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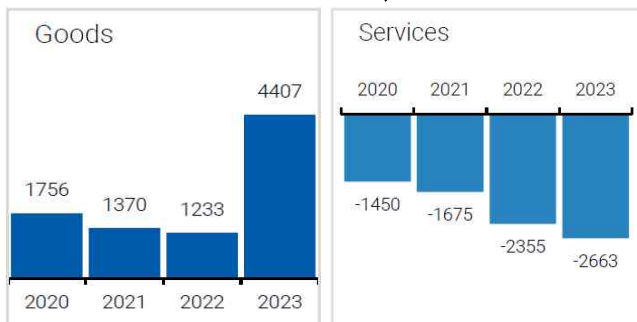
구분	2019	2020	2021	2022	2023
경상수지	-2,162	-675	-2,108	-2,303	245
경상수지/GDP	-15.2	-5.1	-13.8	-13.4	1.3
상품수지	1,158	1,756	1,370	1,233	4,407
상품수출	7,183	6,991	8,136	9,854	13,892
상품수입	6,025	5,235	6,766	8,622	9,485
외환보유액	3,182	3,995	3,671	2,890	4,272
총외채	31,650	32,360	33,940	33,480	38,100
총외채잔액/GDP	222.8	243.1	222.0	195.3	202.9
D.S.R.	42.0	65.5	35.0	36.9	50.9

자료: IMF, EIU

광물 수출세 유지와 관광업 회복세 전환으로 경상수지 흑자 유지 기대

- 경상수지 적자의 근본 원인인 서비스수지 적자는 2023년에는 전년 대비 13.1% 증가한 26.6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나, 상품수지 흑자가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해(257.5%) 경상수지는 GDP의 1.3%에 해당하는 흑자로 전환된 것으로 추정됨. Gashuun Sukhait와 Zamiin-Uud 국경을 통한 수출은 각각 전체 수출액의 45.4%, 22.2%를 차지하며 2022년 9월 개통된 타왕 톨고이 탄광- Gashuun Sukhait 연결 철도는 2023년 대 중국 석탄 5,000만 톤 수출에 기여함. 중국의 에너지 공급 안정 및 수입 석탄 무관세 정책, 중국 철강업체 마진 축소에 따라 러시아산과 호주산에 비해 값싼 몽골산 석탄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보임.
- 한편,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서비스수출은 전년 대비 477.6백만 달러 증가하였으며 이 중 관광업 부문의 증가액은 292.9백만 달러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2024년에도 관광업 부문의 서비스수지 개선 기여도가 클 것으로 전망됨.

[그림 8] 2020~23년 몽골 상품수지, 서비스수지(백만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표 1] 몽골 관광객 수 추이

년도	관광객 수(명)	증감율(YOY, %)
2023	594,013	107.5
2023.4분기	107,825	43.3
2023.3분기	259,340	88.8
2023.2분기	148,792	142.2
2023.1분기	78,056	537.9

대외거래

- 몽골 정부는 2023~25년을 '몽골 방문의 해'로 선포하고 관광법 개정안 마련, 몽골-미국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2024년 발효 예정) 등 관광업 활성화 및 지정학적 취약성 보완을 도모함. 2023년 비자 발급건수는 4만 4,831건이며, 전자비자 발급건수는 전년보다 4배 증가한 3만 1,242건임. 다만, 전체 입국 관광객 중 러시아, 한국, 중국 관광객 비중이 약 77.6%에 달하고, 러시아 봉쇄에 따른 서구권 관광객의 입국 한계로 인해 상품수지 대비 서비스수지 부진이 지속될 것으로 보임.
- 미국과 체결한 항공자유화 협정은 몽골-미국 직항 노선 개설, 항공편 개설 단순 신고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며, 몽골-헝가리 항공서비스에 관한 협정(2024.3월 체결)으로 몽골-헝가리 직항편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동유럽국 관광객의 몽골 접근성이 높아질 것으로 전망됨.

철도노선 및 내륙항 인프라 개선을 통한 물류처리능력 향상

- 광산-시장 물류 운송 인프라 구축에서는 울란바토르를 포함한 몽골 중부를 통과하는 몽골 횡단 철도와 러시아 국경에서 Choibalsan까지 이어진 철로를 연결하는 것이 단기적 우선순위임. 해당 프로젝트 완료시 몽골 주요 도시와 광산이 중국 북동부에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몽골 정부는 내륙항¹⁾ 추가 건설을 통해 물류 처리능력 향상 및 운송비용 절감으로 물류 병목현상을 완화코자 함.

* WB LPI(물류생산성지수) 순위: 135위('14) → 109위('16) → 130위('18) → 97위('23)

- 중장기 경제개발 계획 'Vision 2050'의 첫 단계인 '신부흥정책'에 따라 2022년 9월 타반톨고이 광산-가송소하이트 철도노선이 개통되었으며 같은 해 11월에 준바얀-항기, 2023년 2월에 준바얀-타반톨고이 광산의 신호·통신 시스템 구축이 완료됨. 약 900km의 철도 인프라 구축으로 고비 지역에 위치한 광산의 투자매력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됨.

[그림 9] 몽골 철로 및 내륙항 건설 예정도



자료: EIU

[그림 10] 2022년 이후 개통 철도노선도



자료: Montsam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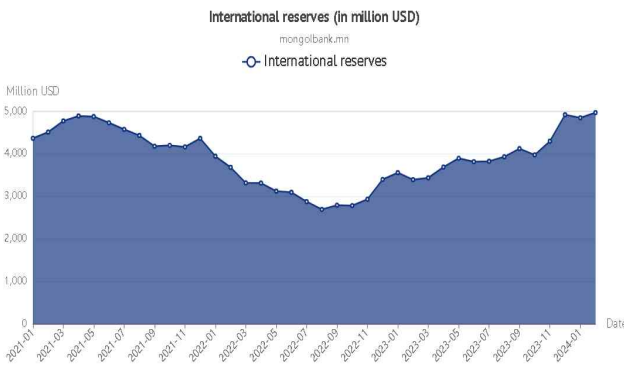
1) dry port. 내륙에 큰 강 또는 운하가 길게 뻗어 있어 역내 수상운항이 가능한 곳에 생성된 항구로, 수상운송 또는 육상운송과 수상운송 간 연계를 위해 축조됨. 항구의 위치에 따라 하항(河港), 상류항(上流港), 하구항(河口港), 호항(湖港) 등으로 분류됨.

외채상환능력

철도 인프라 개선, 수출 증가로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확보 기대

- 중국의 리오프닝 및 몽골과의 국경 재개방으로 인한 수주 잔고 정리, 오유 툴고이 광산의 구리 채굴 본격화 등의 영향으로 몽골의 외환보유액은 2022년 8월 27억 달러에서 2024년 2월 50억 달러까지 반등함. 2022년 11월 개통한 길이 227km의 Zuunbayan-Khangai 철도 노선은 몽골의 새로운 수출입 통로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2024년 '지역개발 및 건설 지원의 해' 선포에 따른 수송물량 증대로 안정적인 외환보유액 확보가 기대됨.
- 몽골 중앙은행에 따르면 외환보유액은 2021년 4월 49억 달러에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22년 8월 최저치인 27억 달러를 기록한 뒤 2022년 4분기부터 증가세로 돌아섰으며, 광산업, 제조업 수출액 증가 추이 고려 시 팬데믹 발생 이전보다 높은 수준의 외환보유액을 유지할 것으로 전망됨.

[그림 11] 몽골 외환보유액 추이(2021.1월~2024.2월)



자료: 몽골 중앙은행

[표 2] 몽골 외환보유액 변동(매월 1일 기준)

년 월	외환보유액 (백만 달러)	증감율(%)	
		전월대비	전년대비
2024-02	4,970.51	2.5	46.42
2023-12	4,921.47	14.47	44.77
2023-06	3,817.83	-2.03	23.26
2022-12	3,399.6	15.82	-22.14
2022-06	3,097.2	-0.93	-34.54
2021-12	4,366.1	4.82	-3.71
2021-06	4,731.8	-3.02	33.07

2024년 만기도래 국채의 성공적 차환으로 디폴트 위험 감소

- 몽골 정부는 2023년 3억 5,000만 달러 규모의 국채를 발행(2029년 만기 도래)하고 국채 차환권을 행사해 2024년 만기 도래하는 3억 9,300만 달러 규모의 채권 중 상당 부분을 상환하였음. 상환된 채권의 금리(8.75%)가 상환재원 마련을 위해 신규 발행된 채권의 금리(7.875%)보다 높아, 정부의 공적채무이자지급액 부담이 다소 감소하였음. 한편, 몽골개발은행(DBM)은 2023년 10월, 12월에 만기 예정이었던 유로본드와 사무라이본드를 전액 상환하였음.
- IMF에 따르면 몽골의 2023~28년 중 만기 도래 국채는 Gerege bond(5억 1,700만 달러), DBM Eurobond(5억 달러), DBM Samurai bond(300억 엔, 이상 2023년), Khuraldai bond(6억 달러, 2024년), Nomad bond(6억 달러, 2026년), Century Eurobond(5억 달러, 2027년), Century 2 bond(6억 5,000만 달러, 2028년)의 총 7건임.
- 한편, Moody's는 DBM의 장기신용등급(LLC)을 B3(등급 전망은 '안정적')으로 유지하고 독자신용등급(BCA)를 Caa2에서 Caa1으로 상향 조정함. S&P 또한 몽골의 단기 국가채무불이행위험 전망을 '안정적'에서 '긍정적'으로 상향 조정함. DBM의 신용등급 유지, 무역수지 흑자 유지 등의 영향으로 2024년 만기도래 외채의 성공적인 차환이 가능했음.

구조적취약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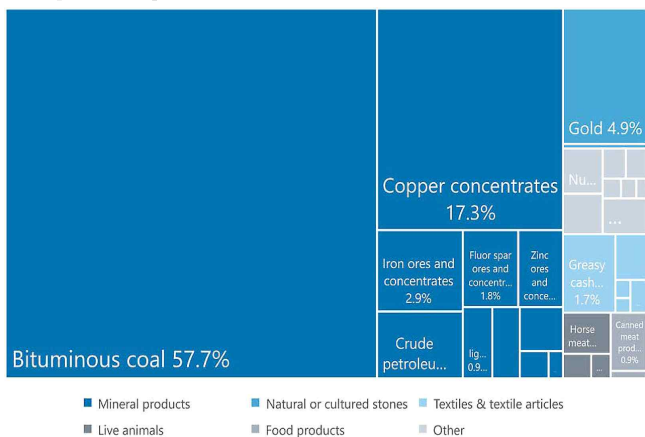
중국과 러시아에 대한 높은 경제의존도

- 몽골은 내륙국의 특성상 인접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경제적으로 크게 의존하고 있음.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주요 무역대상국은 중국, 러시아, 일본으로 각각 수입 비중은 40.8%, 25.8%, 7.7%에 달함. 대 러시아 수입의 70.9%는 석유제품, 대 일본 수입의 75.3%는 자동차, 대 중국 수입의 9.2%는 트럭이 차지함.
- 천연가스를 비롯한 대부분의 에너지를 러시아에서 수입하는 한편, 대외무역 관련 금융거래의 상당 부분을 러시아계 은행들에 의존하고 있어 러시아의 대내외적 불안정성이 몽골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낮출 위험이 존재함.
-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서방의 러시아 제재 지속 등의 상황에서 러시아로부터 원유 및 석유제품을 안정적으로 공급받는 것은 몽골 경제의 중요한 과제이며, 이를 위해 2023년 9월 몽골 의회 의장-러시아 하원 의장 회담, 2024년 2월 연료 수출 미규제 계약 초안 작성 등의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음.

광업에 치우친 경제구조의 다각화 필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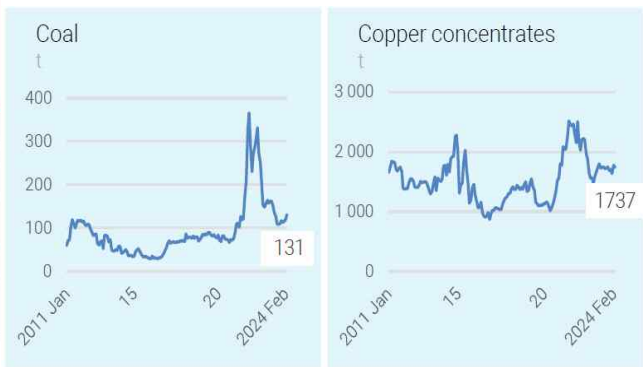
- 2023년 OECD 자료에 따르면 수출 비중 1위, 2위는 각각 광석·금속(48.7%)과 원유(32.6%)로 단일산업 수출의존도가 매우 높은 경제구조임. 몽골 통계청 또한 2023년 산업분석 리포트에서 광업 부문의 산출량 증가를 언급하며 2.5배 이상 증가한 석탄 및 갈탄 채굴량을 주요 원인으로 봄. 몽골 경제는 원자재 국제가격 변동 및 주요 수입국의 경기변동에 취약하며, 중국의 부동산 경기 침체, 중국 지방정부의 긴축재정 기조는 몽골의 수출수요 감소를 초래하여 몽골 경제의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함.

[그림 12] 몽골의 2023년 품목별 상품수출 비중



자료: 몽골 통계청

[그림 13] 몽골의 주요 수출광물 가격 추이(단위: 달러)



자료: 몽골 통계청

성장잠재력

풍부한 광물자원 보유로 자원 확보전에서 투자 매력도 증가

- 몽골은 각각 세계 2위와 4위 규모의 매장량을 자랑하는 구리와 석탄 외에도 약 80가지의 광물이 풍부하게 매장된 자원 부국으로, 희토류 역시 전 세계 매장량 중 약 16%가 몽골에 매장되어 있음.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광업 부문의 부가가치는 전년 대비 23.4% 증가한 3조 9,000억 투그릭으로, 금과 몰리브덴을 제외한 모든 주요 광물의 수출이 증가함.
- 오유 톨고이 광산은 세계 최대의 구리 매장지 중 하나로 노천 채굴에 이어 2023년 3월 지하 광산 채굴이 개시됨. 노천광 및 지하 광산에서 2023~27년까지 연평균 35만 톤, 2028~36년까지 연평균 50만 톤의 구리를 생산할 것으로 예상되며 2030년에는 세계에서 4위 규모의 구리 광산이 될 전망이다.
- '닥터 코퍼'(Dr. Copper)로 불리는 구리 가격은 글로벌 경제의 주요 선행지표로, 런던금속거래소(LME)에 따르면 구리 선물(3개월물) 가격이 US\$9,083/ton를 기록하는 등(2024.3.18) 1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상승함. 경기 활성화 기대, 친환경 정책 강조로 구리 가격은 중장기적으로 강세를 보일 전망이며, '슈퍼 콘탱고'²⁾ 현상이 발생해 Goldman Sachs, Morgan Stanley 등 주요 투자은행은 연말 구리 가격이 톤당 1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예상함.

* 몽골 정부의 2024년 자원가격 전망: 구리 9,000달러/톤, 원유 85달러/배럴

- 몽골 정부는 2006년 광물법을 개정하여 광산을 전략광산, 일반광산, 기타광산으로 분류하고 생산 규모가 GDP의 5% 이상인 주요 광산을 전략광산으로 지정하여 정부가 반드시 전략광산의 지분을 보유하도록 법제화함. 핵심 광물을 둘러싼 국제 공급망 경쟁 심화로 몽골의 투자 매력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2023년 5월 마크롱 대통령은 프랑스 대통령으로서 사상 최초로 몽골을 방문해 희토류 개발에 대한 관심을 표명함.

[표 3] 몽골의 2023년 주요 광물 채굴 및 수출 현황

	2023		2023 2022	
	Extract	Export	Extract	Export
	thousand tonnes		percent	
Coal, mln.t	81.2	69.6	2.2**	2.2**
Crude oil, mln.barrels	4.9	4.7	90.6	81.5
Molybdenum concentrate	5.6	6.4	-4.6	-1.5
Gold, t	14.9	11.7	-23.4	-40.5
Iron ore, concentrate, mln.t	7.6	5.7	-18.7	20.5
Copper concentrate	1 395.3	1 524.8	17.3	4.5
Fluorspar concentrate	313.0	1 087.8	91.5	2.8**
Zinc concentrate	402.9	150.5	0.7	6.5

**수출물량이 각각 2.2배, 2.8배 증가함

자료: 몽골 통계청

[그림 14] 몽골 핵심광물 분포도

Critical minerals in Mongolia are drawing global attention
(distribution of strategic minerals)



자료: Mineral Resources Authority of Mongolia, Orano, EIU









2) super contango. 상품의 선물가격이 현물가격보다 훨씬 높게 형성되는 현상. 일반적으로 슈퍼 콘탱고는 당장의 불안으로 수요가 급격히 감소하면서 공급과잉 현상이 일어나 현물을 저장할 재고공간이 부족해지면서 선물계약에 반영되는 현물 저장비용이 급증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2024년 4월 현재 구리 시장에서의 슈퍼 콘탱고는 글로벌 공급 부족 현상이 미래에 더욱 심해져 구리 가격이 앞으로 몇 개월 뒤 훨씬 더 큰 폭으로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원인임.

정책성과

장기 개발계획 'Vision 2050' 및 중기 정책 'New Recovery Policy' 수립

- 2020년 몽골 정부는 인간·사회·환경이 고려된 장기 개발계획 'Vision 2050'을 발표함. 1992~2018년 기간 동안 추진된 517개의 국가개발정책을 분석해 9개의 목표를 수립했으며 정책 개발 과정에서 국민 의견 수렴이 이루어졌다는 의의가 있음. 10년 단위로 목표단계가 세분화되어 있으며 GDP 중 제조가공업, 운송업 비중을 각각 2050년까지 27.4%, 11.6%로 확대할 계획임(2018년 기준 10.9%, 4.6%).
- 2021년 12월 몽골 정부는 경제발전을 제약하는 6가지 요인을 공공-민간 파트너십으로 해결하기 위해 중기 정책인 新부흥정책을 수립함. ①국경 통관소 부흥, ②에너지 부흥, ③산업 부흥, ④도농 부흥, ⑤녹색개발 부흥, ⑥행정 생산성 부흥을 목표로 하며 평균 6%의 장기적 경제성장률, 65%의 경제활동참가율을 정책 효과로 기대함. 고비 사막 지역의 용수 접근성 개선 사업인 'Blue Horse' 프로젝트, 철도망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등이 新부흥정책에 따라 시행되었으며,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23년 1인당 GDP는 전년 대비 8.7% 증가함.

[표 4] Vision 2050 장기 개발정책의 9개 목표

 <p>SHARED NATIONAL VALUES</p> <p>전 국민에 대한 '언어, 역사, 문화' 교육 국민국가의 근간이 되는 공유가치 개발</p>	 <p>GOVERNANCE</p> <p>스마트하고 지속가능한 정부 구축 공정한 정의 및 청렴한 국가 보장</p>
 <p>HUMAN DEVELOPMENT</p> <p>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ex) 0.9 달성 행복지수(Happiness Index) 상위 10개국 진입</p>	 <p>GREEN DEVELOPMENT</p> <p>환경 친화적 녹색 개발 촉진 생태계 균형 유지 및 환경지속성 확보</p>
 <p>THE QUALITY OF LIFE AND MIDDLE CLASS</p> <p>지속적 가계소득 증가 및 중산층 비중 80% 도달 경쟁력 있는 투자환경 조성</p>	 <p>SAFE AND SECURE SOCIETY</p> <p>국방력 강화, 인권·자유 보호, 재난위험 감소를 통한 인간 및 사회 안전 보장</p>
 <p>ECONOMY</p> <p>GDP 777억 달러, 1인당 GDP 15,000달러 달성 제조가공업, 운송업 비중 확대</p>	 <p>REGIONAL AND LOCAL DEVELOPMENT</p> <p>안정적인 인구 정착 시스템 마련 지역균형발전</p>
	 <p>ULAANBAATAR AND SATELLITE CITIES</p> <p>사람 중심의 안락하고 친환경적인 스마트 시티 개발</p>

자료: New Recovery Policy Accelerator, KOTRA

정책성과

2023년 정부 재정수입 증가 및 정부부채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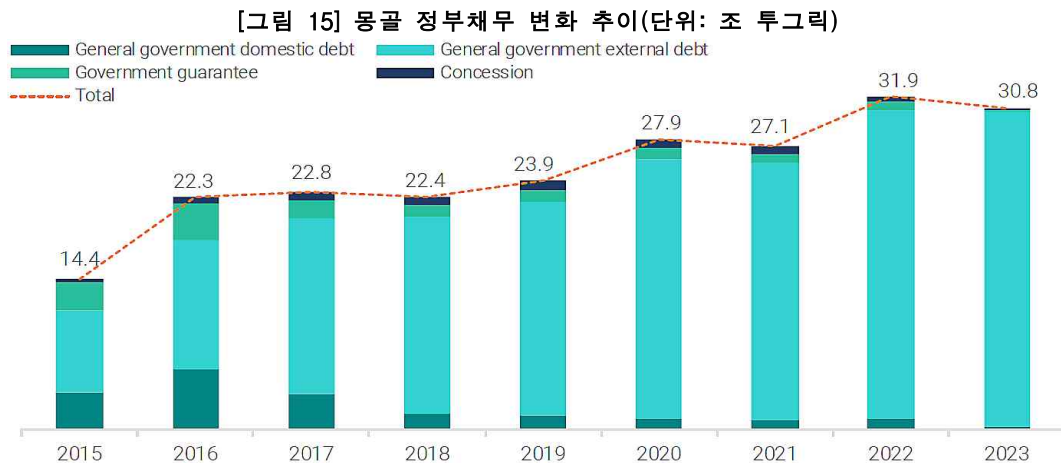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정부 재정수입은 2019년 12조 투그릭에서 코로나19 팬데믹의 영향으로 2020년 10.4조 투그릭으로 감소한 뒤 점차 회복되어 2023년 24.3조 투그릭을 기록함. 2022년 대비 부동산세, 소득세, 부가가치세 증가율은 각각 67%, 51.6%, 21%이며 소득세의 경우 법인소득세 징수액 증가가 전체 소득세 징수액 증가를 견인하였음(전년 대비 법인소득세 징수액은 59.1%, 개인소득세 징수액은 37.5% 증가). 광업 부문 로열티 및 부가가치세 수입으로 정부 재정수입은 2024년에도 증가할 전망이다.
- 2023년 정부부채는 30.8조 투그릭으로 전년 대비 3.7% 감소했으며 국내채무, 대외채무, 정부여신보증, 양허성 부채 중 대외채무만 전년 대비 2.4% 증가함. 한편, 총외채는 345.7억 달러로 전년 대비 3.7% 증가했으나 이는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제외), 직접투자(기업간 대출)의 대외채무 증가에 기인한 것이며 정부, 중앙은행 외채는 각각 1.1%, 18.1% 감소함.

* 2023년 일반정부 부채(단위: 십억 투그릭)

국내채무 234.1, 대외채무 30,319.5, 정부여신보증 30.9, 양허성 부채 180.5

* 2023년 총외채(단위: 십억 달러)

일반정부 7.9 중앙은행 1.8, 예금취급기관(중앙은행 제외) 1.7, 직접투자(기업간 대출) 14.8, 기타 8.3



자료: 몽골 통계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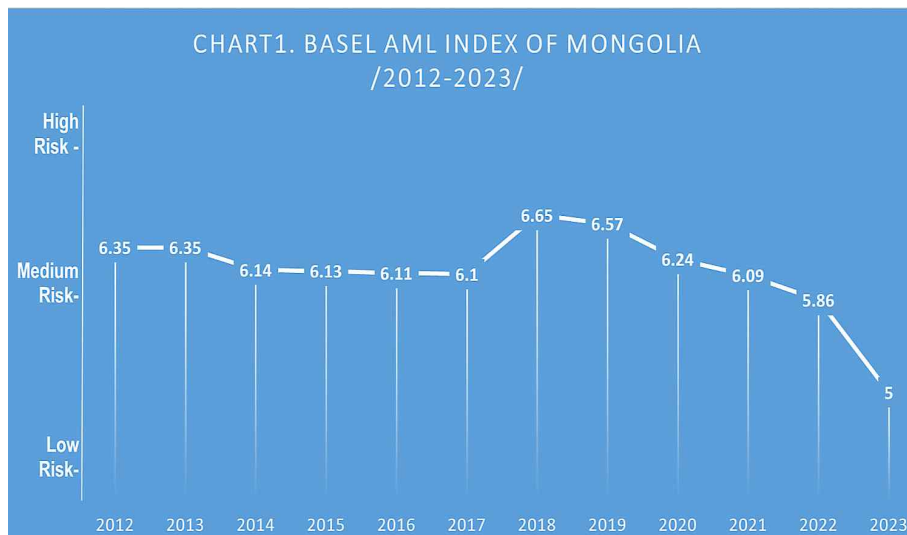
투자 활성화를 위한 대내외적 정책 노력

- 민관협력에 관한 법률(Law on Public-Private Partnership)이 2022년 12월 국회를 통과해 2024년부터 발효됨. 정부-민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민간 부문의 자본투자를 활성화하는 것이 주요 골자이며, 정부의 자금 조달 부담 완화, 민간 부문의 참여를 통한 경쟁 촉진, 증가하는 인프라 수요 충족 등의 효과가 기대됨.
- 몽골 정부는 외국인투자 유입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음. 경제개발부는 원스톱 서비스, 승인 불필요, 투자자 권리 보장 등 대 몽골 투자 매력을 홍보하는 몽골 투자가이드를 발간했으며, 투자법 개정안과 은행법 개정안이 각각 2023년, 2024년 국회에 제출됨.

정책성과

- 바젤 거버넌스 연구소의 2023년 11월 발표에 따르면 몽골의 바젤 AML 지수는 5로 전년 대비 0.86 감소하였음(152개국 중 83위). 몽골의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ML/TF)위험이 낮아졌으며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기술 권고사항 40개에서 모두 '준수'(compliant), '대부분 준수'(largely compliant)로 평가되는 등 2019년 FATF 그레이리스트 진입 당시(바젤 AML 지수 20위)와 비교해 개선이 이루어짐.

[그림 16] 몽골 바젤지수 추이



자료: 몽골 중앙은행

정치안정

현 여당인 몽골인민당(PPP)의 2024년 총선 승리가 예상되나 의석 점유율 증가는 미지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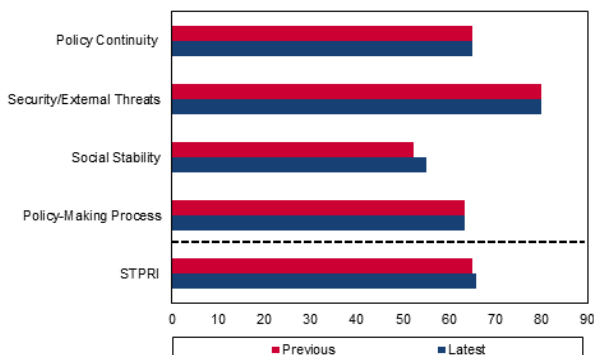
- 2020년 총선에서 76석 중 62석을 차지하는 압승을 거둔 몽골인민당(PPP)은 2024년 6월 28일 예정된 총선에서도 다수당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됨. 오히려 후렐수흐 대통령(전 총리)과 롬상남스라이 어용에 르덴 총리 모두 PPP 소속으로 정치적 교착위험이 낮고 총선 이후에도 정책의 일관성·연속성이 기대됨. 다만, 국민의 정부신뢰 하락과 비례대표제 도입으로 인해 오는 6월의 총선에서 집권 여당의 의석 점유율 증가는 불확실함.
- 국영 광산회사 에르데네스 타반 톨고이의 경영진이 중국에 석탄을 수출하는 과정에서 불법적 이득을 취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2022년 12월 울란바토르에 대규모 시위가 발생한 일명 '석탄 마피아 스캔들'을 계기로 2023년 5월 헌법이 개정되어 의석은 76석에서 126석으로 확대되었으며, 이 중 78명은 다수대표제, 48명은 비례대표제로 선출되는 혼합선거제도가 도입됨.
- 8번의 총선(1992~2020년)에서 PPP가 6번, 민주당이 2번(1996년, 2012년) 승리했으며, 제3당의 원내진입은 거의 불가능함. 2012년 총선에서 76명 중 48명을 비례대표제로 선출하는 혼합선거제를 채택하였으나, 위헌 결정으로 도입이 보류되어 왔음. 국민의 약 절반이 울란바토르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의석의 1/3에 미치지 못하는 24석이 수도 지역 선거구에 할당되어 투표 가치의 불평등 문제가 존재하였음.

정치위험 감소와 선거제도 공고화

- FitchSolutions는 인플레이션 완화, 중국과의 관계 강화, 내수경기 회복을 고려해 몽골의 단기 정치위험 지수를 65.2점에서 65.8점으로 상향하고, 헌법 개정으로 의석이 늘어남에 따라 울란바토르의 과소 대표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보아 장기 정치위험 지수를 68.7점에서 69.1점으로 상향함(점수가 높을수록 위험성이 낮음). 다만 2021년 대선 투표율은 59%에 불과해 국민의 정부신뢰 및 정치참여가 하락함.
- 몽골은 EIU가 발표한 2023년 민주주의 지수에서 총 6.48점을 받아 167개국 중 59위이며 '결함이 있는 민주주의'(Flawed democracy)로 평가됨. 프리덤하우스는 2023년 몽골 국가리포트에서 선거법이 선거 직전에 빈번히 개정되나 전반적으로 공정하며 2021년 6월 대선 이후 선거관리위원회(GED)의 선거 관리에 이의가 제기되지 않았다고 분석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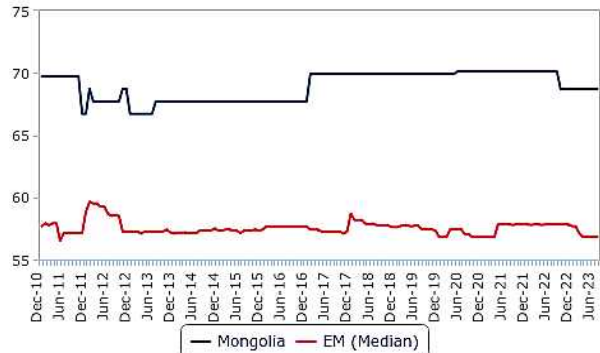
* 민주주의 지수 추이: 6.50('19) → 6.48('20) → 6.42('21) → 6.35('22) → 6.48('23)

[그림 17] 2023년 몽골의 단기정치위험지수(STPRI)



자료: FitchSolutions

[그림 18] 2023년 몽골의 장기정치위험지수(LTPRI)



사회안정

'석탄 마피아 스캔들' 이후 반부패 노력 강화

- 2024년 1월 몽골 정부는 증권거래소(MSE)의 석탄 전자 거래 성과를 발표함. 2023년 석탄 거래량은 1,510만 톤, 거래금액은 7조 4천억 투그릭이었으며 등록된 석탄 매수기업 수는 전자거래 도입 직후 45개에서 발표 시점 244개로 증가함. 석탄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려는 정책적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2023년 7월부터 시행된 광산물거래소법(Law on Mining Products Exchange)에 따라 거래정보가 모두 공개됨.
- 몽골 정부는 2023~24년을 '부패 척결의 해'로 선포했으며, 2023년 4월 몽골 반부패청(IAAC)은 '5Sh' 정책을 보완하는 2030 국가전략을 공개함. '5Sh' 정책은 고발 및 신고자 보호(Shugel), 청탁을 통한 불법이익 수취 근절(Shuur), 해외 도피 범죄자의 국내 인도 및 외국인 투자자 보호(Shuvuu), 투명성 강화(Shilen), 불법 자산 몰수(Shiljuulen avah)를 운영 방향으로 함.

* 5W Operation: Whistleblowing, Wiping-out, Wasp, Wide-Open, Wealth

조드, 사막화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회불안정 존재

- UN은 몽골의 조드(dzud)가 '위험' 수준에 도달했다고 보고했으며, 2024년 2월 몽골 정부는 심각한 조드로 인해 5월 15일까지 대비를 강화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킴. 한국 정부는 2024년 3월 몽골 내 지속 중인 조드 피해 대응에 2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을 결정함.

* 조드: 혹독한 추위와 폭설로 심각한 가축 폐사를 유발하는 자연재해

- 몽골의 사막화로 모래폭풍의 발생 빈도 및 강도가 증가하고 있으며 캐시미어 직물 생산을 위한 염소 방목으로 황폐화가 가속됨. ADB, 몽골 정부, 녹색기후기금의 공동 자금으로 추진되는 7억 3,500만 달러 규모의 프로그램인 ASDIP은 초원 보호와 녹색성장을 지원하며, 2024년 2월 유럽투자은행(EIB)은 5,440만 유로의 첫 번째 트랑셰(tranche) 계약에 서명함.

Moody's는 몽골의 ESG Credit Impact Score에 대해 CIS-4로 평가

- Moody's의 ESG 신용영향점수(ESG Credit Impact Score)는 1(긍정적)~5(매우 부정적)의 5단계로 구분되며 하위 평가항목은 환경, 사회, 지배구조로 구성됨. 몽골은 환경, 지배구조에 대한 위험 노출도가 높은 것으로 분석되며 ESG 신용영향점수는 4등급(Highly Negative)에 해당함.
- **(환경)** 석탄 기반 경제, 도시화 진행으로 대기 포함 환경오염 정도가 높으며 탄소 전환위험에 취약함. 또한 광물 채굴, 과도한 방목, 삼림벌채 및 국토의 사막화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된 점 등을 고려해 몽골의 환경(Environmental)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 **(사회)** 소득 불평등과 보건·교육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청년층 인구 비율(30세 미만 인구 비중 52% 이상) 간 균형이 성립하여 몽골의 사회(Social) 영향은 다소 부정적(3등급)으로 평가됨.
- **(지배구조)** 구조개혁에 있어 허약한 집행기관과 낮은 정책효율성 문제가 존재함. 낮은 수준의 재정 건전성 및 경기순응적 정책 경향은 경제 침체기의 환경, 사회 위험에 대응하는 정부의 재정 능력을 제약해 몽골의 지배구조(Governance) 영향은 매우 부정적(4등급)으로 평가됨.

국제관계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서 경제회랑의 중심지로 기능

- 경제회랑(Economic Corridor)은 일대일로 경로 상의 국가들과 중국을 철도, 도로, 송유관 등으로 연결한다는 중국 정부의 구상으로, 몽골은 러시아와 중국 사이에 위치해 경제회랑의 중심지로 기능할 수 있음. 2024년 착공 예정인 '시베리아의 힘 2'(Power of Siberia 2, PoS2)는 러시아와 중국을 연결하는 천연가스관 건설 프로젝트로 몽골 내륙 960km를 경유하게 되며, 몽골의 천연가스 수송료 수입 확보 및 대기환경 개선이 기대됨.
- 몽골 통계청에 따르면 2010~23년 FDI 유입 총누적액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17.4%에 달하며, 에너지 부문의 대 러시아 수입의존도가 높아 중국, 러시아와 경제적 관계가 밀접함. 몽골과 외국 정부 간 항공자유화 협정 체결을 통해 지정학적 취약성이 일부 개선될 것으로 보이며, 몽골 최초의 정유공장 및 530km 길이의 송유관 완공 시(2025년 예정) 러시아 원유 수입의존도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

'제3의 이웃' 정책을 통한 국제관계 다변화 추진

- 몽골은 인접국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한 과도한 경제적 의존에 따른 경기 변동성을 낮추고 경제를 다각화하기 위해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 중임. 2023년 4월 미국 경제개발처(USAID)는 5개년 몽골 전략 프레임워크(2023~28년)를 발표했으며, 몽골의 민주주의 제도 강화, 국가 주권 확립 및 경제 다각화 노력을 지원하고자 함. 몽골과 북한의 상호 협력 강화 방안 논의에 대해 몽골의 지정학적 특성이 한반도 안보에 긍정적이라는 분석이 있으며, 미국 정부는 유엔 안보리 결의 내 몽골의 대북 관여를 지지한다는 입장을 밝힘.
- 프랑스는 최대 우라늄 수입국인 니제르의 쿠데타 상황 하에서 우라늄 수입 다변화를 추구해 몽골과 경제 다각화 동기를 공유함. 2023년 10월 몽골-프랑스 협정 서명으로 프랑스는 몽골 내 리튬 탐사에 40만 유로를 투자할 예정이며, 2023년 12월 몽골-보츠와나 수교가 합의됨에 따라 몽골은 UN 192개 회원국과 모두 국교 관계를 수립함.

[그림 19] 몽골 무역의 대 중국 의존도 심화 추이

Mongolia's trade dependence on China deepens again
(% of Mongolia's exports shipped to China)



자료: Haver Analytics; EIU

[표 5] 제3의 이웃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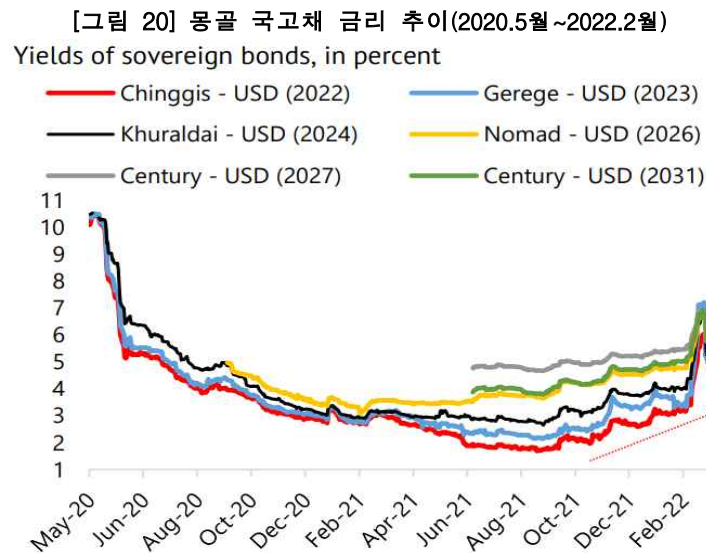
Country	Level of partnership relationship
Japan	Strategic partnership ('10)
India	Strategic partnership ('15)
US	Strategic partnership ('19)
Turkey	Comprehensive partnership ('04)
Germany	Comprehensive partnership ('08)
South Korea	Comprehensive partnership ('11)
Canada	Expanded partnership ('04)
Australia	Expanded partnership ('07)

자료: Ministry of Foreign Affairs of Mongolia

외채상환태도

OECD 회원국 ECA 앞 연체 비율은 미미한 수준이나, 외채상환 압박 존재

- 2023년 9월 말 기준 몽골에 대한 OECD 회원국 ECA의 여신잔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8백만 달러(단기 0.6백만 달러, 중장기 65.2백만 달러) 감소한 1,464.3백만 달러(단기 47.4백만 달러, 중장기 1416.9백만 달러)이며, 이 중 6.9백만 달러의 중장기 채무가 연체 중인 것으로 확인되어 연체비율은 0.4%로 낮은 편임.
- 한편, 몽골은 1990년 이후 IMF로부터 6차례에 걸쳐 구제금융을 받았으며 가장 최근에는 2017~19년 55억 달러 규모의 확대신용자금(EFF)을 지원받은 바 있음. 높은 외채 및 수출입 의존도로 인해 외부충격에 취약한 경제구조 특성으로 구조화된 경상수지 적자가 나타남. IMF는 2023년 10월 보도 자료에서 몽골에 대해 “비즈니스 환경 개선, 부패 해결 등을 통해 FDI 유입을 촉진하고 경제의 회복탄력성을 높이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하며 강화된 투자법의 제정 및 시행, 광물법 정비의 가속화를 해법으로 제시하였음.



자료: Bloomberg, 세계은행

국제시장평가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23.06)	7등급 (2022.07)
Moody's	B3 (2023.02)	B3 (2021.03)
Fitch	B (2024.02)	B (2023.05)

OECD 및 국제신용평가3사는 몽골의 신용도등급 유지

- OECD는 몽골이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며, 외채부담이 과중하고 외환보유액이 충분하지 않은 상황에서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인해 수출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으로부터의 수요가 감소하는 등 코로나19 사태 이후 발생한 경제적 충격에 대응할 수 있는 여력이 부족한 것으로 판단함. OECD는 2020년 6월 이러한 불안정성이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예상과 만연한 부정부패, 소득불평등과 같은 정치·사회적 불안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몽골의 국별위험도 평가등급을 6등급에서 7등급으로 하향 조정했으며, 현재까지 동 등급을 유지 중임.
- 반면, 국제신용평가사인 Moody's, Fitch는 IMF의 지원을 통한 재정 및 외부지표에 대한 지속적 개선을 이유로 2018년 몽골의 국가신용도등급*을 상향 조정한 뒤 현재까지 유지하고 있음.

* Moody's : Caa1 → B3 / Fitch : B- → B

- 몽골은 2016년 국가부도 위기를 겪은 뒤 2017년부터 IMF 구제금융 프로그램을 착실히 수행하며 2019년 까지 5~7%대의 높은 경제성장률을 달성하고 외환보유액을 2016년 대비 2배 가량 확충하는 등 빠른 회복세를 보였음.
- 2020년 코로나19의 발생으로 전 세계가 경제 침체에 빠지며 몽골 경제도 마이너스 성장에 그쳤으나, 이후 세계경기 회복에 힘입어 2022년 5.0% 및 2023년 5.5%의 플러스 성장을 기록하였음. 2024년에도 운송 인프라 개선 및 오유 톨고이 광산 채굴 증산에 따른 수출 증가, 구리 가격 상승, 관광업 회복 등으로 5%대의 경제성장이 전망됨.
- '제3의 이웃' 정책을 추진 중이나 지리적 인접성으로 인해 중국, 러시아의 정치·경제 상황에 많은 영향을 받는 취약한 경제구조임. 중국의 부동산 시장 침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의 장기화는 몽골의 경제성장을 위협하는 외부 요인이며 70%에 불과한 위생시설 접근율(2022년 기준), 제조업 기반의 부실 및 부정부패는 몽골 내부의 위험 요인에 해당함.